

1910년대 주거담론의 성격

김명선^{1*}

¹선문대학교 건축학부

Modern Housing Discourse of Korea in 1910s

Myungsun Kim^{1*}

¹Division of Architecture, Sunmoon University

요약 1910년대 주거담론은 위생론 일반을 다루는 글, 여성의 주택청결 관리를 계몽하는 글 그리고 일본인이 한국 전통주택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글에서 등장한다. 1900년대의 그것과 비교하면 위생에 초점을 두는 점은 같지만 깊이와 양에서 매우 위축되어 있다. 담론의 주제와 맥락도 달라졌다. 1900년대 주거담론은 위생을 국가의 문명화와 부국강병을 위한 방법론으로 인식한 개화론자들이 주도했고 국가의 공중위생 책무를 강조하는 담론과 함께 전개되었다면, 1910년대는 여름철이나 환절기 전염병을 예방 차원에서 개인위생을 계몽하는 의사나 의료관료들을 통해 주로 개진되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환경위생사업에서 식민지 조선인의 거주지와 주택은 제외되어 불결했고, 공중위생정책에서 차별받는 그들에게 주거의 청결은 개인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주택의 불결은 민족적 미개함·열등함의 표상이 되었고 식민지배의 당위성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낳았다. 또한 1920년대 주거개량 문제가 조선인의 인종적 개량과 문명화의 과제로서 논의되는 데 심리적 배경이 되었다.

Abstract All the text of housing in 1910s was conveyed in three; hygiene general readings, home economics texts saying women's responsibility of cleaning house, and Japanese's observation and criticizing Korean housing. It stressed sanitary conditions of housing and criticised Korean housing dirty, of which contents and logic were same with the housing discourse in 1900s but much simpler and smaller in amount. It was mainly written by those in medical treatment field like doctors for enlightenment of private hygiene practice to Koreans. Because Choson Government-General(朝鮮總督府) excluded Korean residential areas from urban sanitation project, they remained dirty in 1910s. The practice of housing sanitation remained just as a matter of private sanitary practice. These political and discursive conditions insinuated a sense that Korean dirty housing was representation of Korean's uncivilized customs and manners and a reason for being colonized. This sense made many Koreans to insist their housings' reforming to sanitary states just for civilization during colonized period.

Key Words : Housing, Discourse, Hygiene, 1910s

1. 서론

‘무단통치’ 기간으로 지칭되는 1910년대 식민지조선에서 집회와 출판 등 일체의 언론활동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때문에 『每日申報』, 『京城日報』 등 소수의 관변신문과 40여종의 잡지가 발행되는 정도였는데 그나마 18종은 종교잡지였다(김근수, 1968: 157-159). 이런 상황에서 1880년대 초반부터 1910년 한일병합까지 약 30년간 신문, 잡지, 학회지 등을 통해 활발하게 개진되던 주거담

론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주거담론이 다시 활발해진 것은 1919년 3.1운동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정책이 ‘문화정치’로 전환되어 출판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되면서부터다. 그러나 1910년대에도 신문, 잡지, 단행본 등에 드물지만 주거관련 글들이 실렸다.

근대 주거담론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1900년대는 근대적 주택을 ‘위생적 주택’으로 설정하고 재래주택을 비위생적이고 개량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과정이었고, 1920년대 이후는 이렇게 규정된 재래주택의

*교신저자 : 김명선(rosaria@sunmoon.ac.kr)

접수일 09년 10월 22일

수정일 10년 02월 02일

게재확정일 10년 02월 24일

개량·개조를 당연시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탐색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1910년대 주거담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앞서 지적했듯이 1910년대 언론활동이 매우 제한되어 담론상의 공백이 있었고, 이런 이유로 1910년대 발간된 매체들을 연구 자료로 적극 발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1910년대는 주거담론의 단절기로 처리되고 있다.

이 논문은 잠재적으로 주거담론의 공백상태로 남아있는 1910년대를 연구 범위로 하고, 1900년대 주거담론이 당대의 사회·정치적 상황 및 당대 지식인들의 담론활동과 연동한다는 점과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정리해보겠다. 이용한 자료는 한국어로 발간된 『每日新報』와 『朝鮮叢報』, 『朝鮮總督府月報』, 『朝鮮及滿洲』 등 관변잡지와 『新文界』, 『半島時論』, 『女子界』, 『曙光』 등 민간잡지를 그리고 단행본들이다.

2. 1910년대 주거담론의 내용

1910년대 주거담론은 세 종류의 글에서 등장한다. 첫째, 위생사상을 보급하고 위생관념을 계몽하여 개인의 위생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글, 둘째, 종류 이상 여성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여 가족구성원의 건강과 아동교육의 책임을 부과하는 글, 셋째, ‘조선 재래주택’의 특징과 장단점을 논하는 글이다.

2.1 위생론 일반을 계몽하는 글에서

근대국가의 위생정책 구현에서 개인에게 위생사상을 보급하고 위생관념을 갖게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조선총독부가 ‘官’으로 기능했던 식민지조선에서 이 역할은 종류 이상 ‘조선인’을 독자층으로 설정한 관변신문 『매일신보』가 맡았다. 그 하나가 환절기나 장마철, 혹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衛生講話」를 연재하여 개인위생에 필요한 사항들을 계몽하는 일이었다. 이 연재글 중에 주택에 관한 기사가 등장한다.

1918년 겨울(1918.2.15-17, 2.20-24, 2.26) 羅錫琪가 8회에 걸쳐 연재한 「衛生講話」(1-8) 중 5회 글이 대표적이다. 나서는 ‘공중의 위생’과 ‘개인의 위생’을 구분한 후 ‘개인의 위생’의 한 항목으로 ‘주거’를 포함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는 다만 풍우 及 한냉, 暑熱을 피할 뿐 아니라 일 가족의 생활 장소인듯, 견고하고 快豁한 住屋을 建營에 주의할 것은 單히 개인위생상 뿐 아니라 공중위생상에도

最히 필요호인 것이라. ①住所를 定호에는 先히 토지의 건 강地를 要호고 此에 基地의 견고와 ②재료의 선택 등을 주의호지오. 又 ③설계에 關호야는 광선, 통풍, 거실의 供用, 용적, 住室의 配賦 등을 다 위생적 요구에 합치호도록 呼호지니라. (羅錫琪, 「衛生講話」(5), 『每日申報』 1918.2.21)

(번호 표기는 본문 서술의 편의를 위해 인용자가 한 것임, 아래 같음)

주거는 외부 기후의 피난처와 가족의 생활공간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규정한 뒤, 위생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견고하고 “쾌활”한 가옥을 짓는 일은 개인위생과 공중위생에 가장 필요한 일이므로, 주택을 지을 때 ①“건강지”이자 지반이 견고한 곳을 선택하고 ②주택의 재료선택에 주의하며 ③광선·통풍·거실의 용도 및 용적·평면구성에서 “위생적 요구”에 합치되도록 하라고 나열했다.

여기에서 ‘건강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더 설명하지 않지만, 불결하거나 움푹 파여서 물이 고여 있는 땅이 아니라 토질이 깨끗하고 약간 높아서 건조한 땅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더러운 흙이나 물에서 나쁜 기운이 발생하거나 세균이 번식하여 전염병을 일으킨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1900년대 주거담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전염병의 원인이 더러운 흙이나 물에서 생성되는 나쁜 기운이 아니라 세균이라는 지식이 확산된 이후에도 습하고 더럽고 곳은 세균의 서식지로 여겨졌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건조하고 청결한 토지는 여전히 중요했다(김명선, 2004: 126-128). 이 때문에 건조한 토지는 주거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주의해야 할 재료의 선택에 대해서도 따로 언급하지 않지만, 건조가 잘 된 재료의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00년대 주거담론에서 재료에 습기가 차면 부패하기 쉽고 나쁜균이 발생하며 실내외 공기유통을 방해하니 재료의 건조가 실내통풍에 중요하다는 서술을 발견할 수 있는데,(김명선, 2004: 128-130) 이 생각이 1910년대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광선·통풍·거실용적·실의 배치를 ‘위생적 요구’에 합치하라는 말은, 좋은 채광조건, 양호한 통풍, 넉넉한 거실용적, 거실·침실 등의 남쪽 배치 등을 말하는 것이다.

『매일신보』에 1918년 7월 東佛生이 기고한 「衛生簡談」과 다음해 7월 홍석후가 기고한 「蔬菜에 가장 注意하라」는 좀 더 간략하다.

起居에 至호야도 常히 전염병 예방호으로써 제일 要義를 作호지니 園庭과 住室에 掃除을 須호야 청결을 保호지나 ... 침실에는 신선호 공기를 유통케 호며... (東佛生, 「衛生簡談」, 『每日申報』 1918.7.4)

(인용글에서 ■는 알아볼 수 없는 글자. 아래 같음)

成, 1918: 14-15)

방안을 청결히 하야 일광이 잘 통하게 할지며 마룻밧이나 기천 갖흔 곳은 특별히 정하게 흡이 도켓도다. (洪錫厚, 「蔬菜에 가장 注意하라」, 『每日申報』 1919.7.15)

각각 주택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집 안팎의 청소를 잘 하고 침실에 신선한 공기를 유통시켜야 한다는 내용과, 실내를 청결히 하고 태양광선이 잘 비치게 하며 마루밑이나 개천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좋다는 내용이다.

잡지 『新文界』에서도 비슷한 글을 발견할 수 있다. 柳秉琺의 「衛生學講話: 夏季衛生の 就하야」과 金敎昌의 「衛生新話」인데,

기거로 말하면, 가옥을 청정케 소제하야 陰奧濕隧에 汚穢를 遺滯함이 無하도록 제거하며 ... 房軒廚■에 공기를 교환케 하며... (柳秉琺, 1913.7: 83)

오인이 冬寒氣節에 其온난을 保取기 위하야 온돌에 炭薪을 盛炊케 하고 실내에 炭燃 성대하 화로를 置하야 장시간 室窓을 밀폐하면 室內人은 두통을 ouchin하는 사실이니... (金敎昌, 1914.9: 76)

주택을 청결하게 청소하고 오염물이 정제되지 않도록 실내의 공기를 교환하여 여름철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과 온돌방이든 화로를 피운 방이든 밀폐된 실내에 있으면 두통을 일으킨다고 하여 실내환기의 중요성을 말하는 내용이다.

단행본 중에서 白石保成의 『朝鮮衛生要義』 역시 위생론 일반을 논하면서 주거지의 위생을 말한다.

도회지는 인가 조밀하고 여러 공장, 제조소 등 많기 때문에 공기는 언제나 불결하게 된다. 따라서 되도록 인가 조밀한 땅을 피하고 공기 신선하고 한정한 토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 토지가 과연 가옥의 위치로 적당인지 판별하는 것은 건축학자의 일로, 처음에 그 토지에 우물을 파고 검사하는 방법을 쓴다. 공학적으로 선량한 토지는 역시 위생상으로도 대개 양호하다. 요컨대 가옥은 모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적합한 것이 좋다.

- (1) 공기유통이 좋은 곳
- (2) 배수가 편한 곳
- (3) 광선이 잘 비치는 곳
- (4) 토지가 건조한 곳
- (5) 가옥의 주위에 불결물이나 악취가 없는 곳 (白石保

전반부에서 인가가 드문 곳이 주거지로 좋은 이유가 공기유통이 잘 되기 때문이라고 한 뒤 마지막에 5가지 조건을 나열하는데, (3)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토지가 건조해야 됨을, (3)은 토지의 채광이 좋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즉, 주거지의 조건으로 신선한 공기·건조한 토지·양호한 채광을 꼽고 있다.

이상 1910년대 위생론 일반을 서술하는 신문과 잡지의 글들은 주택 실내에 신선한 공기를 유통시키고 햇볕이 잘 들게 하며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위생에 중요함을 강조하고, 단행본은 주택지도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그 주장의 근거가 자세히 언급되지 않지만, 공기의 화학적 성질, 공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리학 지식, 더럽고 습기 찬 공기가 나쁜 기운을 생기게 해서 건강을 해친다는 ‘장기설’이 근거가 되었다(신동원, 2002: 347-348). 장기설은 전염병의 원인균으로서 세균이 발견되기까지 널리 유포되어 있던 전염병의 원인설로, 세균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인 1910년대에도 주택지의 토양 및 공기의 건조가 위생조건으로 거론되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

2.2 가정학 지식의 보급에서

근대기 여성잡지는 여성교육에 사용된 교과용도서와 함께 가정학 지식이 보급되는 중요한 경로였다. 가정학은 근대적 여성에게 가족의 건강관리와 인성교육을 주부의 책임으로 할당한 서구의 근대적 학문이다. 1880년대말 여성교육이 시작되면서 일본을 통해 조선에 도입되어 근대기 여성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910년대 초반 발간된 여성잡지 『우리의 가정』은 창간호(1913.12)부터 ‘가정위생’란을 연재하고 여성이 지켜야 할 간단한 위생수칙들을 계몽하였다. 연재 중 창간호에 실린 濱田玄達의 「가정의 위생」은 임부가 ‘거처하는 방은 엷더케 흘가’라는 소재목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임부의: 인용자) 방안을 정결하게 하고 식랍은 공기를 류통하게 흡은 사랍의 위상상 업지 못홀 일이라. 더욱이 틱중에는 그 필요흡을 감동홀 것이라. 고로 그 거실, 침실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신선한 공기가 류통하게 흐기를 주의홀 것이라. ... 거실은 남향이 가장 도흔 것이라. (濱田玄達, 1913.12: 자료 파손으로 면수 알 수 없음)

임부가 있는 실내를 깨끗하게 하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하는 것이 임부와 태아의 위생에 반드시 필요하고 임부

의 거실은 남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임부가 거처하는 실내의 위생조건으로 청결·통풍·채광이 거론되고 있다.

『신문계』에 실린 李慈元의 「衛生學講話: 孕婦의 産前産後」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항상 (孕婦의: 인용자) 처소를 청결하게 하고 ... 허산 방에 주의할 것은 공기 유통을 적당케 할지니 ... 방은 밝게 하고 전일과 같지 집을 펴서 부정케 하지 말고 유지를 식라서 정하게 할 것이며... (李慈元, 1913.6: 72-73)

임부가 거처하는 방을 깨끗하게 하고 환기에 주의해야 하며 햇빛이 잘 비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역시 실내의 청결·통풍·채광을 말한다.

이런 내용은 가정에 임부가 있을 경우 거처하는 방의 위생상태를 주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등장한다. 근대 가정학에서 주부는 노인, 어린이, 병자와 함께 임부의 건강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도록 설정되었다. 노약자의 건강은 곧 근대국가 구성원의 건강이고 건강한 구성원은 부국강병의 기초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2.3 조선 재래주택을 다루면서

조선의 재래주택을 언급하는 글은 『매일신보』와 단행본에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매일신보』에서 1919년 7월 7명의 의사들이 「夏季에 대한 위생문제」를 7회에 걸쳐 연재하는데, 그 첫 번째 글인 홍석후의 「蔬菜에 가장 注意하라」에 등장한다.

①우리 조선사람의 평도를 살펴보면 위생에 주의하지 않음은 안이나 **첫째로 가옥제도가 완전히 못하여 위생의 실상 리익을 얻기 어려운즉** 너 생각에는 다른 것보다도 가옥제도를 기량함이 요겠다고 생각하노라. ②조선의 가옥은 빈부귀천의 구별이 엷시 모도 다 부엌과 변소와 광과 쪼 거처하는 방이 서로 맞닿았스니 이러케 되야 셔야 엷지 위생의 참뜻을 나타내리요. 첫째 부엌으로 말하면 동서양인을 물론하고 그 가명 중에 가장 청결하여야 할 것이어늘 우리 조선집의 부엌은 이와 반대로 한 가명 중에 제일 더러운 곳이라. ... ③그럼으로 **위생을 톡톡히 실행하라 하면 첫째는 가옥제도를 좀 기량함이 좃겠고** 만일 그렇지 못하거든 부엌이나 변소같은 곳은 될 슈잇는디로 청결히 흠이 올겠도다. (洪錫厚, 「蔬菜에 가장 注意하라」, 『每日申報』 1919.7.15)

(굵은 글자는 강조하기 위해 인용자가 한 것임)

도입부(①)와 말미(③)에서 조선의 “가옥제도”가 완전

하지 못해 위생의 이익을 얻기 어려우므로 철저히 위생적이려면 우선 “가옥제도”를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가옥제도”는 문맥상 평면구성으로 이해된다. 즉, ②에서 빈부귀천 구별 없이 조선의 가옥은 모두 부엌, 변소, 광, 거처하는 방이 맞붙어 있는 구조라서 비위생적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평면구성이 비위생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홍석후는 개량방법을 제시하지 않지만, 부엌이 가장 더럽다거나 개량이 어려우면 부엌과 변소의 청결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로 보아, 방·부엌과 변소·광을 분리시켜 오물이 주거공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배치하는 개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듯하다.

단행본으로는 釋尾春仍의 『新朝鮮及新滿洲』와 村上唯吉田의 『朝鮮人の衣食住』에서 발견되는데,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①그(조선인의: 인용자) 가옥은 倭陋卑濕하여 공기 통하지 않는다. ... ④요컨대 鮮人 가옥은 방한 분위로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嚴寒에 침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炎暑의 候에는 苦熱座居하기에 견딜 수 없어 ... 조선가옥은 이처럼 온돌식이라서 연료도 隨 다량을 요한다. ... ①집의 크기는 보통 몇 평에 불과하지만 보통 客房, 內房, 釜房의 세 실이 있다. ②한 실 겨우 다다미 두 세장 깔리는 정도이고 각 실에 작은 창이 있지만 실내는 음침하고 일광이 비치지 않는다. 공기의 유통 극히 불량하다 (釋尾春仍, 1913: 174, 315).

①조선가옥은 귀족, 양반, 부호 등을 제외한 일반집은 극히 왜소하고 좁은 상태이고 2층집은 매우 드물다. ... ②벽에는 낮은 곳에 작은 창을 두고 출입구로 삼는다. 따라서 실내는 매우 어둡고 채광·환기 충분하지 않고 게다가 천장이 낮고 각실 모두 좁아 마치 토굴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④생각하면 가옥구조가 이런 이유는 주로 방한설비만 깊게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 ③가옥에 꼭 있어야 하는 除穢배수 등의 설비는 거의 방임주의로 얼마나 위생사상이 부족한지 일견 추측하기에 족하다. (村上唯吉田, 1916: 91-92)

두 책은 재래 ‘조선주택’의 특징으로 ①집의 규모가 작고 낮고 ②방들의 크기도 작고 창이 작아 어둡고 환기가 잘 안 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들고 후자는 ④배세·배수설비가 부족하다는 점도 더하였다. 이 때문에 실내 채광과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답답하고 위생에 불량하다는 것이다. 그 원인을 ④“방한을 위주로 생각해서 지어졌다” 혹은 “주로 방한설비만 깊게 고려한 결과”라고 하여, 온돌난방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일본인이 저술한 이 책들은 ‘조선주택’을 채광·환기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그 규모와 실내환경을 비위생적이라 판단한 뒤, 온돌난방에서 실내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집의 규모를 작게 하고 실내를 폐쇄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결론짓고 있다.

3. 1910년대 주거담론의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1910년대에는 주거지 및 주택재료의 건조, 채광·환기·청결을 고려한 실내배치와 실의 용적, 입부와 같은 노약자가 거처하는 실내의 채광·환기·청결에 유의할 것, 조선 재래주택의 비위생적 구조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1900년대 주거담론과 같은 내용이다. 글의 논리 역시 같다. 주거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간단하고 단편적인 청결방법과 위생수칙을 제시하거나 조선주택을 위생의 관점에서 비위생적이라 평가하고 개량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위생이 주택을 인식하는 압도적인 관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광·환기·청결이 중요한 요소로 선택되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담론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매우 위축되어 있다. 1900년대 주거담론에서는 위생학·생리학·물리·화학·과 같은 여타 과학적 지식이 도입되면서 주거위생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1910년대는 그러한 지식이 근거였지만 설명은 생략되었다. 이 시기 주거담론은 주거위생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계몽의 차원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선전과 주입의 효과를 위해 요약된 간단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10년대 주거담론은 의사를 비롯해 의료관련 인사들이 주도한다. 매일신보에 주거관련 기사들 중 저자를 밝힌 경우 ‘醫生’, ‘京城 某醫師’, ‘세부란스 病院’ 소속, ‘京都大學’ 소속으로 나와 있다. 잡지에서는 ‘ばら齒磨東光園主’, ‘의학박사’, ‘醫藥申報 사장’, ‘京城助産院主’, ‘帝國大學醫科卒業生’, ‘醫學師’ 등으로 나온다. 1900년대 주거담론의 주체가 개화파 관료나 개화주의 지식인들이었다면, 1910년대는 의료인들로 교체된 셈이다.

1900년대 위생에 초점을 둔 주거담론은 개인의 건강을 위한 계몽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다. 근대적 지식을 습득하고 문명의 습속을 익히며 건강한 근대인을 양성하여 국가의 위기에 대처하려는 개화파 지식인들의 움직임과 연동했다. 개인의 건강은 근대국가 국가구성원의 건강이고 국가의 자강과 부국강병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는 ‘자강론’의 논리가 작용했다. 1910년대에도 “대저 위생이라 칭하는 자는 吾人の 건강을 보호하여 益益 其 신체를 強壯케 하고 평소의 질병 침해를 예방하여 天年적 수명

을 보전케 하여 인생의 행복을 완전케 함을 지칭함”일 뿐 더러 “연극 인생의 수명이 연장하여 其國民의 행복이 오 其國운이 강성할지라”(金敎昌, 1914.9: 76)는 논리가 있었다. 그러나 당면한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려는 지식인들의 담론활동이 아니라, 위생관료나 의사가 식민지인의 건강을 관리할 목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개인위생 실천을 독려하고 계몽하는 식민지 경영을 일선에서 보조하는 활동이었다.

4. 결론

1910년대 주거담론이 특징은 1910년대 ‘무단통치’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비롯되었다. 언론활동 및 집회·결사의 자유가 억제되었기 때문에 깊이 있는 근대적 지식의 유포가 차단되어 있었고 더불어 담론활동을 통해 사회적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토대가 없었다. 또한 일제는 고급 인력의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고등교육기관을 식민지조선에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채광·통풍·청결이 담보된 주거가 위생적이며 재래주택을 위생적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학문적·기술적으로 심화시키거나 사회적 실천으로 연계시킬 만한 건축인력이 육성되지 못했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는 개인의 신체와 주변환경을 자발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독려하는 계몽을 통해 개인위생을 관리했다면, 방역과 함께 도로수축이나 상수도 포설, 가로수 등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공중위생을 관리하는 위생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환경개선사업은 일본인들이 사는 지역에 집중되었고 조선인의 거주지는 제외되었다(정혜경·김혜숙, 2005: 63). 따라서 조선인의 거주지와 주택은 공중위생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불결한 채, 주거위행은 개인의 책임과 의무로서 부과되는 형국이였다.

이렇듯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차별적 위생정책은 주택위생을 개인위생 실천의 문제로 국한시켜 인식하게 하고 비위생적 주거의 문제를 개인과 민족의 문제로 귀결 짓는 효과를 낳았을 것이다. 또한 조선인의 불결과 비위생은 식민 지배의 당위성을 수궁하게 하고 강화시키는 지배전략의 효과도 가졌을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1920~30년대 주거개량론을 펼친 식민지조선의 지식인들은 주택의 비위생을 조선인의 내태·계으름·열등과 무리 없이 연계했다. 주택의 불결을 인종적 미개함과 비문명화의 표상으로 여겼고 위생적 주택으로 개조·개량하는 것은 문명을 획득하는 유효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무엇보다 이것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는데 그치고 있다.

참고문헌

- [1] 金敎昌, “衛生新話”, 新文界 제2권, 제9호, 9월, 1914
- [2] 每日申報
- [3] 白石保成, 朝鮮衛生要義, 京城: 白石保成, 1918
- [4] 濱田玄達, “가정의 위생”, 우리의 가령 제1호, 12월, 1913
- [5] 柳秉珣, “衛生學講話: 夏季衛生の 就하야”, 新文界 제1권 제4호, 7월, 1913
- [6] 李慈元, “衛生學講話: 孕婦의 産前産後”, 新文界 제1권 제3호, 6월, 1913
- [7] 朝鮮及滿洲
- [8] 朝鮮總督府月報
- [9] 朝鮮彙報
- [10] 村上唯吉田 編, 朝鮮人の衣食住, 京城: 大和商會印刷所 內 圖書出版部, 1916
- [11] 釋尾春仍, 新朝鮮及新滿洲, 京城: 朝鮮雜誌社, 1913
- [12] 김근수, “무단정치시대의 잡지개관”, 아세아연구 제11권 제1호, 1968
- [13] 김명선, 한말(1876-1910) 근대적 주거의식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14] 김순일, “개화기의 주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26권 제106호, 6월, 1982
- [15] 박지향, 일그러진 근대, 푸른역사, 2003
- [16] 박찬승, “한말-일제시기 사회진화론의 성격과 영향”, 역사비평 제32호, 봄, 1996
- [17] 신동원, “세균설과 식민지근대성 비판”, 역사비평 제58호, 2002
- [18] 정혜경·김혜숙, “1910년대 식민지조선의 위생정책”, 수요역사연구회 편, 매일신보 1910년대, 두리미디어, 2005

김 명 선(Myungsun Kim)

[정회원]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석사)
- 2008년 8월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관심분야>
한국근대건축